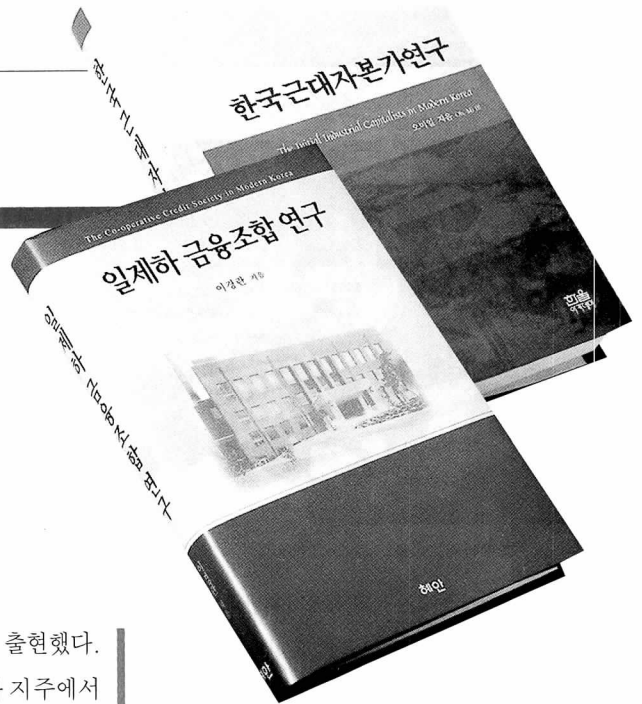


한국 근대자본의 성장 배경과 성격 밝힌 연구서들

《한국근대자본가연구》 《일제하 금융조합 연구》

박 섭 | 인제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근대자본가연구》는 한국의 근대 자본가가 형성된 역사적 특징과 자본가층의 역할을 고찰한다. 《일제하 금융조합 연구》는 일제하 금융조합의 협동조합 논리와 금융운영, 농촌조직화 사업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이 책들은 경제사와 운동사, 사상사를 결합시킨 연구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한국근대자본가연구》는 그 많은 실증에 비해 새로움이 적고, 《일제하 금융조합 연구》는 농회와 금융조합의 갈등을 놓치고 있어 아쉽다.

오미일의 《한국근대자본가연구》(한울)는 20세기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한국 자본가 계급의 경제적·정치적 활동과 그들의 정신세계를 연구한다. 역사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민족자본과 예속자본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념이 사용돼왔다. 쉽게 말하면 민족자본은 민족 독립운동의 협력자고, 예속자본은 제국주의의 협력자다. 민족자본이든 예속자본이든 자본가는 협력자로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자본가에 대한 연구는 부진했다.

서평자는 졸저(《식민지의 경제변동》 제3장, 문학과지성사)에서 식민지시기의 자본가를 주체로 두고 민족운동을 서술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 현대의 자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오미일의 저서는 한국 자본가 계급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상인에서 공업 기업가로 변신하는 과정 밝혀

오미일의 저서는 크게 세 가지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첫째는 한국에서 공업 기업가가 등장한 사실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호황을 초래하자 공업 기업이 급증했으며, 호황이 끝나고 다시 불황이 시작되자 경쟁력 있는 기업이 그

렇지 않은 기업을 합병해 대기업이 출현했다. 그리하여 자본가의 주력이 상인과 지주에서 공업 기업가로 바뀌었다.

둘째는 자본가 민족운동의 변천이다. 한말의 자강운동은 상인과 지주가 중심이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조선총독부에 협력했지만, 다수는 독립운동을 직접 행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1910년대 비밀결사운동은 자본가의 물질적 원조에 크게 의존했다. 그렇지만 1920년대에는 실력양성운동이 자본가에 의한 민족운동의 주류를 이뤘다. 완전독립을 주장하는 자본가는 거의 없었다.

셋째는 통감부의 경제정책과 조선총독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본가들의 다양한 태도다. 1900년대 초에 일부 자본가는 통감부의 경제정책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으나 일부 자본가는 통감부의 경제정책이 조선인의 이익에 어긋남을 비판했다. 1920년대에는 자본가의 태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조선총독부의 경제정책을 인정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 실력양성론의 입장에서 서서 조선총독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태도, 완전독립의 입장에서 서서 비판하는 태도 등이었다.

서평자는 오미일의 저서에서 많은 새로운

오미일 지음
한울/A5신/584면/30,000원

이경란 지음
혜안/A5신/384면/20,000원

사실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의 저서가 예속과 민족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아 좋았다. 그런데 그 많은 실증에 비하면 새로움이 적은 듯해 아쉬움도 남는다. 자본가의 입장이 다양했다는 것은 졸저와 김동명의 논문(《1920년대 조선에서의 정치운동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2~33, 한국정치학회, 1998)이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서평자는 한국사회에서 자본가에 대한 이미지와 싸우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은이는 그 앞에서 멈춰버렸다. 실증작업이 지은이를 피로하게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지은이는 자본가라는 개념을 사용했고 그 속에는 지주, 상인, 기업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 서평자도 자주 느끼지만 자본가라는 개념 속에 지주, 상인, 기업가를 모두 포함시키면 분석하기 어려워진다. 계급투쟁을 분석하겠다면 분석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주, 상인, 기업가는 피지배계급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일

치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자본가의 행동과 이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줬다면 어려움이 커진다. 이 3자가 지향하는 바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자본가의 정치적 활동이 변천해온 것이 별 의미 없는 사실이 될 수 있다. 지주, 상인, 기업가 각각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도 단지 구성이 바뀌어 변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본가의 정치적 활동에서 자치주의가 거론되지 않은 이유를 알기 어려웠다. 자치주의에 대한 연구는 이제 갓 출발했을 뿐인데, 이것은 한국의 자본가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주제며, 식민지의 자본가에 관한 비교사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금융조합 분석해

이경란의 《일제하 금융조합 연구》(혜안)는 식민지 금융조합이 설립될 때부터 해체될 때까지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에 어떻게 협력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협력을 문제삼는 것은 그것이 협동조합이라는 외관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첫째, 19세기 말 농민의 궁핍을 줄이고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일은 농민에게 필요한 소비 및 생산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야만 고리대를 없앨 수 있었고 농민에게 잉여가 남을 수 있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이해했고, 소농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금융기구를 만들려고 했으며, 1907년에 소농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금융조합 규칙을 제정했다. 그렇지만 통감부의 힘이 점차 강해지자 금융조합은 상층 농민과 지주가 혜택을 입는 기구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에게만 자금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1907년에 제정된 금융조합 규칙은 조합원의 자치를 인정했지만, 1914년에 제정된 금융조합에 관한 명령은 총독부가 금융조합을 세세하게 규제할 수 있게 했다. 이때부터

“서평자는 《식민지의 경제변동》에서 식민지시기의 자본가를 주체로 두고 민족운동을 서술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 현대의 자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오미일의 저서는 한국 자본가 계급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조합은 총독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해서 총독부가 금융조합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금융조합의 역할이 바뀌었다. 1910년대에는 지주 중심의 농업개량 정책을 수행했으며, 1920년대에는 금융기관의 역할에 충실했다. 1930년대에는 농촌진흥운동의 성공에 협력했고, 1938년 이후 국가 총동원 체제 아래서는 농촌과 농민의 생산력을 전쟁에 총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셋째, 총독부가 원하는 대로 금융조합이 재편되거나, 금융조합의 경영목표가 바뀌었지만, 총독부의 정책목표와 그 실현방법이 원래부터 분명했다거나 총독부의 의도에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농림국·재무국·식산국의 갈등, 금융조합과 산업조합의 갈등, 총독부에 대한 농민조합의 도전 등 총독부의 정책목표와 실현방법이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사건이 있었다.

농회와 금융조합의 갈등관계 분석 약해

금융조합을 협동조합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일은 드물었다고 생각한다. 서평자는 20세기 한국에서 농업자 단체와 정부의 관계를 검토한 적이 있지만(《조직화와 경제성장: 20세기 동아시아 농업》, 200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금융조합보다는 식민지시기의 농회와 해방 이후의 농업 협동조합을 대비시켰다. 이 책은 협동조합으로서 금융조합이 걸어온 길을 상세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후의 협동조합 연구에 좋은 참조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이 협동조합에 치중한 탓인지 농회와 금융조합의 갈등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조합의 역할 변화에 농회의 성장과 후퇴를 대비시켜 보면 그 갈등은 대단히 중요하다. 1910년대에 아직 농회가 미약했을 때, 금융조합은 신용과 농산물 위탁판매만이 아니라 농사개량까지도 떠맡았다. 1920년대에 농회가 점차 강하게 되면서 금융조합은 순수한 금융기관으로 바뀌어갔다. 1930년대에 총독부 재무국(금융조합)이 금융조합의 구관매 사업을 늘리려 했을 때, 농림국(농회)과 재무국 사이에는 커다란 충돌이 일어났다. 자금력이 있었던 금융조합이 그 세력을 점차 증대시키기는 했지만, 해방될 시점까지 금융조합의 세력은 농회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것은 미군정이 비료·농약·농기구·생활필수품의 공급 및 직제품의 생산장려에 금융조합이 아니라 농회를 이용했던 데서 잘 드러난다.

이 책은 신용사업을 하는 금융조합과 구관매 사업을 하는 산업조합이 서로 협력하지 못했고, 결국 금융조합이 산업조합에 흡수되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해방 후 1957년에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농업은행법·신용조합법은 신용사업과 구관매 사업의 담당 조합을 분리시켰는데, 이때도 식민지시기와 동일한 문제가 일어났다. 농업은행과 신용조합이 농협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1961년에 정부가 농업은행과 신용조합을 농업협동조합에 합병시켰다. 서로 다른 두 조직이 비협조적인 한국 현대사회의 약점이 실은 20세기를 관통하는 약점이었음이 협동조합사에서 잘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책의 공통된 특징을 지적하기는 어렵다. 실증적으로 매우 훌륭한 책들이지만, 실증의 함의를 좀더 적극적으로 드러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박 섭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일본 경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30年代朝鮮における農業と農村社會》(한국근대의 농업 변동) 《식민지의 경제변동: 한국과 인도》 등을 펴냈다.